서비스部門 성장과 政策方向

金址鴻


서비스部門이 확대되는 것은 經濟發展段階가 高度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當期, 預測, 研究開発, 發展, 優良, 優良 등의 발달이 製造業 발달에 기여하는 영향이 남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까지의 製造業 異業의 產業政策에서 태피하여 균형있는 產業政策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더욱이 현대 경제중인 우주화에 따라 서비스협상으로 서비스部門에서 도 정차 國際化의 競争이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産業 또는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市場開放 및 自律화를 통한 競争体制을 도입하여 生産性向上에 기여하도록 하고 서비스

1. 序論

1. 韓國서비스계의 環境變化

1960년대와 1970년대에 韓國經濟는 製造業部

筆者: 漢陽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위험을 받고 있으며, 국내의으로도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의 인력이동이 나타남에 따라 한국 경제상으로 처음으로 3차산업 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2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가적인 "의학화 (deindustrialization)"를 위해서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이러한 내부의 "의학화"와 더불어 외부의 "구조적"으로 우루과와 브라질과의 경쟁에 따른 "의학화"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미치지 한국의 서비스부문은 국내외로 열격히 규제가 격화되고,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 왔다. 따라서 서비스시장 "의학화"로 앞서 서비스부문의 "의학화"조정과 국제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외의 "의학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의는 대부분 서비스부문의 "의학화"과 "의학화"에 관련하여 문제의 성에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에 의한 서비스산업의 "의학화"와 제조업 "의학화"의 "의학화"나 "의학화"의 "의학화"에 의한 "의학화"법도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아니라 정책의 "의학화"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그 근본원인과 정책에 의한 "의학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정책의 원동력은 주로 제조업 "의학화" 및 그 "의학화"의 "의학화"에 해당한 "의학화"가 한국경제의 "의학화"에 걸쳐 "의학화"가 "의학화"의 "의학화"에 대한 정책의 성격이 적었기 때문이다.

중장기의 인 "의학화"에서 서비스부문에 대한 주요 정책사례는 서비스부문의 "의학화"의 양상과 잘 정요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외에도 전통적인 경제 "의학화"가 서비스산업의 "의학화"로 앞던지면서도 "의학화"의 "의학화"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 "의학화" Answers: 

II. 서비스산업의 성장

1. 경제발전 수준과 서비스부문 성장

일찍이 Clark와 Fisher는 경제발전에 따라 1차, 2차, 3차산업으로 경제의 중심이 옮겨 간다고 관찰하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의학화"들의 경제를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4,000~5,000달러 수준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의학화"가 증가한다고 "의학화"의 "의학화"가 "의학화"의 "의학화"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ddle(1986)은 각국을 4가지 부류(상태가, 중화, 중상의 부류나, 중상의 부류)로 분류하고서, 종달이 있는 관측치를 제시하였다(표 1과 참조).

(표 1)에서 1인당 국민소득과 제조업 "의학화" 사
〈表 1〉 경제部門별 국내총생산 및 업종의 구성비(1981)

<table>
<thead>
<tr>
<th></th>
<th>발전 범위</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低所得국</td>
<td>中低所得國</td>
<td>中上所得國</td>
<td>產業國</td>
</tr>
<tr>
<td>국내총생산</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차산업</td>
<td>42</td>
<td>27</td>
<td>15</td>
<td>7</td>
</tr>
<tr>
<td>二業</td>
<td>10</td>
<td>16</td>
<td>21</td>
<td>27</td>
</tr>
<tr>
<td>서비스업</td>
<td>48</td>
<td>57</td>
<td>64</td>
<td>66</td>
</tr>
<tr>
<td>雇佣</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차산업</td>
<td>72</td>
<td>53</td>
<td>25</td>
<td>9</td>
</tr>
<tr>
<td>二業</td>
<td>10</td>
<td>14</td>
<td>22</td>
<td>24</td>
</tr>
<tr>
<td>서비스업</td>
<td>18</td>
<td>33</td>
<td>53</td>
<td>67</td>
</tr>
</tbody>
</table>

| 註: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임. |


(低所得國, 中低所得國, 中上所得國, 產業國)
이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국 민소득 증대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속도가 빨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재정으로부터 

제조업으로, 제조업 부문으로부터 서비스부문으로 

자원이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받침해 주고 있다. 즉, 제조업 부문이 가장 

노동력은, 제조업 부문으로 먼저 이동한 다음 

서비스부문으로 차례로 

이동한다고 보면,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부문 양자 

으로 동시에 이동한다. 다시 말해서, 제조업부 

문과 서비스부문(교육서비스 제외) 양자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난다. 제조업부문에서 노동력을 흘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데 

바에서 서비스부문은 자본투자규모에 비해 보다 

많은 수의 노동력을 흘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从中所得国(주로 NICs 또는 NIEs)에 있어서 

서비스부분의 GDP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생 

활수준의 상승(높은 1인당GDP를 비롯하여)가 

관련이 있다. 이들 나라가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 

의 경제로로 묘사되고 있지만, GDP의 60% 이상 

이 서비스부문으로부터 비롯되며, 제조업부문의 

GDP비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중상所得 

국 서비스업중의 두었던 특징은, 애초에 전조 

물리적, 하부구조로부터 사업서비스로 이동하여 

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表2 참조).

이미, 산업화가 끝난 전통국에서는 GDP에 대 

한 부문별 기여도가 1차산업 7%, 제조업 27%, 

서비스업 66%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전반적으로 서비스부문 내에서 건설업, 

도 

소매업, 운송·통신은 제조업은 대신 사업서비스 

(예: 은행, 보험, 부동산, 회계법인 그리고 법률 

서비스 등)와 공공행정, 사회서비스 비중이 증대 

된다.

### 表2: 서비스업중과 국내총생산비중(1981)

<table>
<thead>
<tr>
<th></th>
<th>发展范围</th>
<th>低所得国</th>
<th>中低所得国</th>
<th>中上所得国</th>
<th>產業國</th>
</tr>
</thead>
<tbody>
<tr>
<td>전기·수도·가스</td>
<td>1.5</td>
<td>1.7</td>
<td>2.2</td>
<td>3.3</td>
<td></td>
</tr>
<tr>
<td>건설업</td>
<td>4.3</td>
<td>4.7</td>
<td>6.4</td>
<td>6.5</td>
<td></td>
</tr>
<tr>
<td>운송 및 통신</td>
<td>6.6</td>
<td>7.3</td>
<td>8.4</td>
<td>7.8</td>
<td></td>
</tr>
<tr>
<td>도소매업</td>
<td>12.1</td>
<td>16.0</td>
<td>16.7</td>
<td>13.9</td>
<td></td>
</tr>
<tr>
<td>사업서비스</td>
<td>6.1</td>
<td>10.2</td>
<td>12.6</td>
<td>13.7</td>
<td></td>
</tr>
<tr>
<td>공공행정</td>
<td>12.1</td>
<td>11.2</td>
<td>12.2</td>
<td>14.0</td>
<td></td>
</tr>
<tr>
<td>사회서비스</td>
<td>5.5</td>
<td>5.7</td>
<td>5.3</td>
<td>6.4</td>
<td></td>
</tr>
</tbody>
</table>

註: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임.
2. 韓國 서비스산업의 GDP比重 推移

韓國 서비스部門의 發展過程과 현황에 대해 개
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60년대 이후 최근까
지 25년간 韓國經濟의 成長 및 發展의 원동력은
製造業部門이었다. 수출의 빠르고도 지속적인 성
장은製造業部門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貿易과
운송서비스와 같은 일부 서비스産業에 대한 수요
을 득받침해 주기도 하였다. 물론 동 기간중에도
經濟開発의 努力로 건설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어 왔다.

產業別 GDP구성비율을 살펴보면, 最근까지 1
차산업은 隨著 그 비중이 하락하고, 2차산업은
經濟成長 原動力로서 계속 비중이 증가하여 왔
으나 1988년의 32.5%를 점점으로 비중이 하락
하기 시작하는 대신 서비스部門 비중이 1988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다(表 3, 圖 2 참조).

서비스업 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기 이후 善
水・貿易・通訊서비스와 금융서비스가 꾸준히 높
은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서비스부문의 GDP
比重은 1985년의 11.8%에서 1991년에는
15.2%로 증가하여 상업부문(도소매 및 음식숙
박업)을 능가하는 서비스부문 最大業種으로 성장
하였다. 또한 건설서비스부문은 1989년 이래로 급
격히 촉진하여 1991년에는 GDP比重이 금융서비스
와 비슷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GDP比重이 비
교적 작은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전기・가스・수
도부문의 GDP比重이 1989년 이후 감소하고 있
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소홀했음을 나타내며, 반
면 정부서비스는 1988년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
고 있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운송업과 건설업은 성장률의 변동이 가장 큰
업종이었다. 운송업은 1987∼90년 기간에 큰 성
장을 보였으며, 건설업은 1986년 이래로 호황을
누리고 있고 1990년에는 23%의 고속성장을 하
였다. 도소매업은 1985년에는 가장 비중이 큰 서
비서업종이었으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되
어 그 비중이 198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1990년에는 금융・보험・부동산이 가장 비중이
큰 서비스업종으로 등장하였다.

3. 서비스산업의 資本 및
 勞動比重 推移

產業別 資本額의 추이가 (表 4)와 [圖 2]
(b)에 나타나 있다. Pyo(1992)의 연구에 따르면
總資本額(gross capital stock) 기준으로 볼 때
製造業에 고용된 資本額의 比重은 1970년대
및 1980년대를 통해 증가해 왔으나 1987년의
30.2%를 점점으로 하여 1990년에는 28%로 낮
아지고 있다. 반면 서비스部門의 總資本額比重
은 1970∼80년대를 거쳐 감소하다가 1987년의
62.3%를 기점으로 하여 높아지고 있으며 1989
년 이후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종
중 개인 및 공공서비스부문의 比重 증가가 두드러
지는 반면, 善水・貿易・通訊부문과 전기・가스・
수도부문의 投資減少에 따라 資本額의 比重이
감소하고 있다.

產業別 雇佣의 比重推移가 (表 5)에 제시되어
있다. 韓國經濟는 先進國들과 마찬가지로 經濟發
展과 함께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를 보였다:
(표 3)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증가율 및 구성비(1985~91)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GDP 증가율</td>
<td>7.8</td>
<td>13.2</td>
<td>12.6</td>
<td>12.0</td>
<td>6.2</td>
<td>9.7</td>
<td>8.9</td>
</tr>
<tr>
<td>농림어업</td>
<td>3.8</td>
<td>4.6</td>
<td>-6.8</td>
<td>0.8</td>
<td>-1.1</td>
<td>-5.1</td>
<td>-0.8</td>
</tr>
<tr>
<td></td>
<td>(12.8)</td>
<td>(11.5)</td>
<td>(10.5)</td>
<td>(10.5)</td>
<td>(10.1)</td>
<td>(9.0)</td>
<td>(8.1)</td>
</tr>
<tr>
<td>광업</td>
<td>3.8</td>
<td>8.9</td>
<td>-1.3</td>
<td>-0.6</td>
<td>7.3</td>
<td>-10.8</td>
<td>0.3</td>
</tr>
<tr>
<td></td>
<td>(1.0)</td>
<td>(1.0)</td>
<td>(0.8)</td>
<td>(0.7)</td>
<td>(0.6)</td>
<td>(0.5)</td>
<td>(0.4)</td>
</tr>
<tr>
<td>제조업</td>
<td>7.1</td>
<td>18.4</td>
<td>18.8</td>
<td>13.4</td>
<td>3.7</td>
<td>9.1</td>
<td>8.5</td>
</tr>
<tr>
<td></td>
<td>(30.3)</td>
<td>(31.7)</td>
<td>(32.2)</td>
<td>(32.5)</td>
<td>(31.2)</td>
<td>(28.9)</td>
<td>(27.5)</td>
</tr>
<tr>
<td>서비스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기·가스·수도</td>
<td>13.4</td>
<td>25.3</td>
<td>12.3</td>
<td>9.8</td>
<td>10.7</td>
<td>16.3</td>
<td>8.3</td>
</tr>
<tr>
<td></td>
<td>(2.8)</td>
<td>(3.1)</td>
<td>(2.9)</td>
<td>(2.6)</td>
<td>(2.4)</td>
<td>(2.1)</td>
<td>(2.1)</td>
</tr>
<tr>
<td>건설업</td>
<td>4.4</td>
<td>5.0</td>
<td>12.7</td>
<td>9.5</td>
<td>16.1</td>
<td>23.7</td>
<td>11.3</td>
</tr>
<tr>
<td></td>
<td>(7.7)</td>
<td>(7.1)</td>
<td>(7.4)</td>
<td>(8.1)</td>
<td>(9.7)</td>
<td>(13.2)</td>
<td>(15.4)</td>
</tr>
<tr>
<td>도소매, 음식숙박업</td>
<td>8.3</td>
<td>16.6</td>
<td>14.9</td>
<td>11.1</td>
<td>2.9</td>
<td>7.9</td>
<td>8.6</td>
</tr>
<tr>
<td></td>
<td>(12.2)</td>
<td>(12.5)</td>
<td>(12.8)</td>
<td>(12.4)</td>
<td>(11.7)</td>
<td>(10.9)</td>
<td>(10.6)</td>
</tr>
<tr>
<td>운수·창고·통신</td>
<td>4.8</td>
<td>9.8</td>
<td>13.0</td>
<td>11.8</td>
<td>11.0</td>
<td>11.5</td>
<td>13.0</td>
</tr>
<tr>
<td></td>
<td>(7.6)</td>
<td>(7.6)</td>
<td>(7.5)</td>
<td>(7.2)</td>
<td>(7.3)</td>
<td>(7.0)</td>
<td>(7.1)</td>
</tr>
<tr>
<td>금융·보험·부동산</td>
<td>15.8</td>
<td>11.7</td>
<td>15.9</td>
<td>16.4</td>
<td>11.1</td>
<td>13.3</td>
<td>11.9</td>
</tr>
<tr>
<td></td>
<td>(11.8)</td>
<td>(11.8)</td>
<td>(12.1)</td>
<td>(13.0)</td>
<td>(13.9)</td>
<td>(14.5)</td>
<td>(15.2)</td>
</tr>
<tr>
<td>사회·개인서비스업</td>
<td>13.1</td>
<td>11.0</td>
<td>7.9</td>
<td>9.3</td>
<td>11.9</td>
<td>9.4</td>
<td>9.6</td>
</tr>
<tr>
<td></td>
<td>(4.1)</td>
<td>(4.1)</td>
<td>(3.9)</td>
<td>(3.8)</td>
<td>(4.1)</td>
<td>(4.1)</td>
<td>(4.2)</td>
</tr>
<tr>
<td>정부서비스</td>
<td>1.9</td>
<td>3.4</td>
<td>3.4</td>
<td>4.5</td>
<td>4.7</td>
<td>4.6</td>
<td>3.5</td>
</tr>
<tr>
<td></td>
<td>(7.2)</td>
<td>(7.0)</td>
<td>(6.9)</td>
<td>(6.9)</td>
<td>(7.5)</td>
<td>(7.7)</td>
<td>(7.9)</td>
</tr>
<tr>
<td>민간비영리서비스</td>
<td>12.4</td>
<td>9.0</td>
<td>6.7</td>
<td>10.6</td>
<td>7.9</td>
<td>7.1</td>
<td>5.2</td>
</tr>
<tr>
<td></td>
<td>(2.5)</td>
<td>(2.4)</td>
<td>(2.4)</td>
<td>(2.4)</td>
<td>(2.5)</td>
<td>(2.5)</td>
<td>(2.5)</td>
</tr>
</tbody>
</table>

주: 1) 국내총생산증가율은 1985년 불변가격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2) 1991년도 수치는 추정치임.

참고: 안의 숫자는 당해연도 GDP비중임.

(表 4) 製造業과 서비스부문의 總資本스톡推移

(단위: 10억원, %)

<table>
<thead>
<tr>
<th>년도</th>
<th>농림어업</th>
<th>광업</th>
<th>제조업</th>
<th>서비스업</th>
<th>전기,가스,수도</th>
<th>건설업</th>
<th>도소매,숙박,음식</th>
<th>운수,항고,통신</th>
<th>금융,보험,부동산</th>
<th>개인,공공서비스</th>
</tr>
</thead>
<tbody>
<tr>
<td>1980</td>
<td>9,102</td>
<td>900</td>
<td>34,458</td>
<td>87,866</td>
<td>5,886</td>
<td>2,866</td>
<td>7,171</td>
<td>14,091</td>
<td>43,983</td>
<td>13,868</td>
</tr>
<tr>
<td></td>
<td>(6.9)</td>
<td>(0.7)</td>
<td>(26.0)</td>
<td>(66.4)</td>
<td>(4.4)</td>
<td>(2.2)</td>
<td>(5.4)</td>
<td>(10.6)</td>
<td>(33.2)</td>
<td>(10.5)</td>
</tr>
<tr>
<td>1981</td>
<td>11,674</td>
<td>1,194</td>
<td>43,824</td>
<td>104,720</td>
<td>7,777</td>
<td>3,631</td>
<td>8,944</td>
<td>18,524</td>
<td>54,189</td>
<td>18,655</td>
</tr>
<tr>
<td></td>
<td>(7.2)</td>
<td>(0.7)</td>
<td>(27.2)</td>
<td>(64.9)</td>
<td>(4.8)</td>
<td>(2.2)</td>
<td>(5.5)</td>
<td>(11.5)</td>
<td>(33.6)</td>
<td>(11.6)</td>
</tr>
<tr>
<td></td>
<td>(7.1)</td>
<td>(0.7)</td>
<td>(26.6)</td>
<td>(65.6)</td>
<td>(4.8)</td>
<td>(2.2)</td>
<td>(5.4)</td>
<td>(10.6)</td>
<td>(31.0)</td>
<td>(11.5)</td>
</tr>
<tr>
<td>1983</td>
<td>15,774</td>
<td>1,676</td>
<td>61,598</td>
<td>150,113</td>
<td>11,494</td>
<td>4,974</td>
<td>12,137</td>
<td>24,822</td>
<td>69,288</td>
<td>27,398</td>
</tr>
<tr>
<td></td>
<td>(6.9)</td>
<td>(0.7)</td>
<td>(26.9)</td>
<td>(65.5)</td>
<td>(5.0)</td>
<td>(2.2)</td>
<td>(5.3)</td>
<td>(10.8)</td>
<td>(30.2)</td>
<td>(12.0)</td>
</tr>
<tr>
<td>1984</td>
<td>19,568</td>
<td>1,941</td>
<td>70,971</td>
<td>171,349</td>
<td>12,995</td>
<td>5,657</td>
<td>12,822</td>
<td>28,025</td>
<td>77,120</td>
<td>34,729</td>
</tr>
<tr>
<td></td>
<td>(7.4)</td>
<td>(0.7)</td>
<td>(26.9)</td>
<td>(64.9)</td>
<td>(4.9)</td>
<td>(2.1)</td>
<td>(4.9)</td>
<td>(10.6)</td>
<td>(29.2)</td>
<td>(13.2)</td>
</tr>
<tr>
<td>1985</td>
<td>21,217</td>
<td>2,300</td>
<td>85,160</td>
<td>197,222</td>
<td>15,080</td>
<td>6,412</td>
<td>15,912</td>
<td>32,505</td>
<td>86,004</td>
<td>41,310</td>
</tr>
<tr>
<td></td>
<td>(6.9)</td>
<td>(0.7)</td>
<td>(27.8)</td>
<td>(64.5)</td>
<td>(4.9)</td>
<td>(2.1)</td>
<td>(5.2)</td>
<td>(10.6)</td>
<td>(28.1)</td>
<td>(13.5)</td>
</tr>
<tr>
<td></td>
<td>(6.8)</td>
<td>(0.8)</td>
<td>(29.3)</td>
<td>(63.2)</td>
<td>(4.8)</td>
<td>(2.0)</td>
<td>(5.3)</td>
<td>(10.2)</td>
<td>(27.2)</td>
<td>(13.6)</td>
</tr>
<tr>
<td>1987</td>
<td>27,211</td>
<td>2,945</td>
<td>120,844</td>
<td>249,350</td>
<td>18,285</td>
<td>7,930</td>
<td>21,110</td>
<td>39,327</td>
<td>107,143</td>
<td>55,555</td>
</tr>
<tr>
<td></td>
<td>(6.8)</td>
<td>(0.7)</td>
<td>(30.2)</td>
<td>(62.3)</td>
<td>(4.6)</td>
<td>(2.0)</td>
<td>(5.3)</td>
<td>(9.8)</td>
<td>(26.8)</td>
<td>(13.9)</td>
</tr>
<tr>
<td></td>
<td>(7.1)</td>
<td>(0.7)</td>
<td>(29.5)</td>
<td>(62.8)</td>
<td>(4.3)</td>
<td>(1.9)</td>
<td>(5.2)</td>
<td>(9.7)</td>
<td>(27.6)</td>
<td>(14.1)</td>
</tr>
<tr>
<td>1989</td>
<td>38,279</td>
<td>3,970</td>
<td>153,825</td>
<td>326,491</td>
<td>22,667</td>
<td>10,843</td>
<td>28,846</td>
<td>49,651</td>
<td>137,474</td>
<td>77,010</td>
</tr>
<tr>
<td></td>
<td>(7.3)</td>
<td>(0.8)</td>
<td>(29.4)</td>
<td>(62.5)</td>
<td>(4.3)</td>
<td>(2.1)</td>
<td>(5.5)</td>
<td>(9.5)</td>
<td>(26.3)</td>
<td>(14.7)</td>
</tr>
<tr>
<td>1990</td>
<td>46,712</td>
<td>4,127</td>
<td>180,793</td>
<td>414,295</td>
<td>26,396</td>
<td>13,875</td>
<td>33,880</td>
<td>56,282</td>
<td>184,806</td>
<td>99,057</td>
</tr>
<tr>
<td></td>
<td>(7.2)</td>
<td>(0.6)</td>
<td>(28.0)</td>
<td>(64.1)</td>
<td>(4.1)</td>
<td>(2.1)</td>
<td>(5.2)</td>
<td>(8.7)</td>
<td>(28.6)</td>
<td>(15.3)</td>
</tr>
</tbody>
</table>

註：括호 안의 숫자는 당해 總資本스톡에 대한 비중임.
(表 5) 産業別 就業構造

<table>
<thead>
<tr>
<th></th>
<th>농림어업</th>
<th>광공업</th>
<th>제조업</th>
<th>서비스</th>
<th>건설업</th>
</tr>
</thead>
<tbody>
<tr>
<td>1970</td>
<td>50.4</td>
<td>14.3</td>
<td>13.2</td>
<td>35.2</td>
<td>2.9</td>
</tr>
<tr>
<td>1975</td>
<td>45.9</td>
<td>19.1</td>
<td>18.6</td>
<td>35.0</td>
<td>4.3</td>
</tr>
<tr>
<td>1980</td>
<td>34.0</td>
<td>22.6</td>
<td>21.7</td>
<td>43.4</td>
<td>6.1</td>
</tr>
<tr>
<td>1985</td>
<td>24.9</td>
<td>24.4</td>
<td>23.4</td>
<td>50.7</td>
<td>6.1</td>
</tr>
<tr>
<td>1986</td>
<td>23.6</td>
<td>25.9</td>
<td>24.7</td>
<td>50.5</td>
<td>5.7</td>
</tr>
<tr>
<td>1987</td>
<td>21.9</td>
<td>28.1</td>
<td>27.0</td>
<td>50.0</td>
<td>5.6</td>
</tr>
<tr>
<td>1988</td>
<td>20.7</td>
<td>28.5</td>
<td>27.7</td>
<td>50.9</td>
<td>6.1</td>
</tr>
<tr>
<td>1989</td>
<td>19.5</td>
<td>28.2</td>
<td>27.6</td>
<td>52.3</td>
<td>6.5</td>
</tr>
<tr>
<td>1990</td>
<td>18.3</td>
<td>27.3</td>
<td>26.9</td>
<td>54.4</td>
<td>7.4</td>
</tr>
<tr>
<td>1991</td>
<td>16.7</td>
<td>27.0</td>
<td>26.6</td>
<td>56.3</td>
<td>8.3</td>
</tr>
</tbody>
</table>


1975년에 35%, 1980년에 43.4%, 1985년에 50.7%, 1990년에 54.4%로, 이는 주로 1次産業 就業比重의 저속적인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製造業部門의 就業比重은 서비스부문보다는 낮은 속도로 증가했다. 製造業部門의 就業은 1986~88년 기간에 큰 성장을 보였으나 1988년의 27.7%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부문의 就業比重은 1987년의 50%에서 1991년에는 56.3%로 급격히 증가했다.

製造業部門과 서비스部門간의 就業比重
의 변화가 [図 3]에 나타나 있다. 1988년 이전
 industriization 동안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雇傭比이 서로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고서도 동
시에 증가한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는 제조업
部門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雇傭比가 증가한다. [図 3]에서 보듯이 총雇傭
에서의 비중은 1976년까지는 2次產業増加와 3次
產業減少의 추세를 보이다가 1976~88년중에 2
次産業增加와 3次産業減少, 1988년 이후에는 2次
産業減少와 3次産業減少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GDP 및 資本比의
변화와도 일치한다(図 2(b) 참조).

설명의 편의를 위해 韓国의 雇傭 및 業績構造
變化는 1976년까지는 1단계, 1976~88년까지는
2단계, 1988년 이후는 3단계로 구분하여 본다면,
1단계는 「아서 루이스」(Arthur Lewis) 교수의
전환점(turning point)이론[1]에서 보듯이 農業部門
의 잠재실업기간은 實質貿金의 上昇 없이 製造業
으로 이동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의 產業政策은 資本(國內及 海外貯蓄) 동원을 극
대화하여 經濟活動의 量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2단계에 들어서는 農業部門으로부터 잠재실업
군의 고갈에 따른 實質貿金 上昇과 함께 輕工業의
競爭力의變化가 나타났다. 1976년 이후 韓國
은 輕工業輸出의 상대적 위축과 함께 重化學工業
投資를 증대시켰다. 이때의 產業政策은 資本과
勞動的效率的이 供給과 結合에 주안점을 두

1) 루이스의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에 대한
설명은 Lewis와 Fei & Ranis의 저서에 설명되어 있
음. 배우기 교수의 논문(1982)에서도 한국의 Lewisian
전환점을 1976년경으로 주장하였음.
3단계에 들어서면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평창은 서로에게 제약 요인 (trade-off)이 되기 시작한다. 즉, 완전무역에 접근하면서 3차 산업의 성장은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산업의 무역 수출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목표는 회귀 자원이 되기 시작한 노동의 절약 및 노동생산성이 극대화와 노동력재배치에 따른 경제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4. 한국 서비스의 가격과의 상대적 전이

농수산물, 정제, 서비스로 나누어 가격 변동의 전이 (그 0과 0조)를 보면 1980년대 초반 이후 서비스가 가격 변동에 그 수호가 공장부가 가격에 비하여
따르게 상승하였으며, 1989년 이후 가격상승률에 있어 서비스가 농산물보다 앞서고 있다. 이는 농산물의 공급하기가 높고 1980년 중반 이후 본격화된 원유 해산물 등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므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비슷한 건설의 서비스는 공급기반이 높으며,외부의 성장과 파악, 그리고 금융 및 기술의 고용화추세가 바로 가격에 상승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III. 서비스부분의 성장에 관한 이론

1988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부분의 비중이 확대되고 서비스가격이 빠르게 인상되는 현상을 단순히 통상에 기인하는 일시적 경제적반응으로 보기는 그 추세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여 경제성장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을 Neary(1980)의 모형을 이용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서비스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미진터'를 도입하여 가격이 '음직적'일 때 빠른 빌딩 및 비효율적 세부가 문제를 분석하고, 이의 인,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기본 모델

소규모 경제를 갖춘 기업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자국가격 탄력성이 (Own-price elasticity of demand) 을 (1)이고, 대체가격 (gross substitute)이라고 가정한다.

가계의 저축소비와 노동공급은 가격에 대한 예상뿐만 아니라, 노동 및 재화비용 (rationing)에 대한 예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가계가 각 가격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재화 need 함수 (xi) 및 노동 need 함수 (li)를 도출할 수 있다.

\[ x_i = x_i(p_1, p_2, w, I) \]

(단, i = 1, 2, I는 고정소득)

\[ l_i = l_i(p_1, p_2, w, I) \]

기업의 사례: 모든 기업은 재화 시장 및 요소 시장에서 가격수용자 (price taker)로서 행동한다. 따라서, 기업의 행위는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의 고용량 (e, e)
을 선택하고 이를 투입하여 재무조직과 재무조직의 
계산량(\(y_1, y_2\))을 결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각 
기업의 근무시각과 요소수용량은 다음과 같다.
\[
y_1 = v_1(p_1, w, h) \quad e_1 = e_1(p_1, w, h) \\
\text{(\(h\): 재무조직의 기술수준)}
y_2 = v_2(p_2, w, k) \quad e_2 = e_2(p_2, w, k) \\
\text{(\(k\): 재무조직의 기술수준)}
\]

재무조직의 인력이나 명목금의 허락은 재무조직 
의 금융을 늘리고 요소수용량 증가시키는 반면, 
기업의 기술수준향상은 일반적 금융의 금융을 증가 
시키기는 하지만 요소수용을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특히 공급적력성이 1보다 작거나, 기 
술적보와 성격상 노동력질감의 효과가 큰 경우에는 
는 더욱 그러하다.

정부:

정부는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가계에 
이전소득을 배분할 수 있고 또한 \(g_i\) (단, \(i = 1, 2\))만큼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어 정책적 인 
介入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재무조직은 일반적인 재무조직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 재무조직은 재무조직 
이내에 재무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outh4

4) 한편 교육시장의 균형은 재무조직을 의미하 
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
BTL : y_1(p_1, w, k) = x_1(p_1, p_2, w, I) + g_1
\]

재무조직 탈착성
토지수지지금계론(BTL)은 
\((w, p_1)\)평면에서 우상한 곡선으로 나타나며, 
\(BTL\)의 왼쪽부분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아래쪽에서 
는 무역수지축자가 나타난다.
2. 비동적의 가격하의 중기형 모델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얻출한 4개 영역에서 균형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자.

i) 비동적의 가격하의 중기형 모델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격을 살펴보자.
권이 있는 경우 

(a) 노동수용의 우선권이 교외지역에 있는 경우

(b) 노동수용의 우선권이 교내지역에 있는 경우

권이 있는 경우 
동시적인 초과수요현상은 매체된다.

iv) 교외지역의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기업은 수량 제약을 받지 않지만 가계는 원하는 만큼의 비교 역제를 살 수 없게 되므로 노동공급을 조절한다.

이 경우 동상적인 노동시장 균형조건에서는 노동의 초과수요현상이 나타나 실호노동시장 균형조건은 \( LMEL'(EDNT) \)으로 회전하고 전반적인 초과수요영역 \( R \)이 확대된다.

결론적으로 Neary는 교내지역과 교외지역의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기업은 수량 제약을 받지 않지만 가계는 원하는 만큼의 비교 역제를 살 수 없게 되므로 노동공급을 조절한다.

이 경우 동상적인 노동시장 균형조건에서는 노동의 초과수요현상이 나타나 실호노동시장 균형조건은 \( LMEL'(EDNT) \)으로 회전하고 전반적인 초과수요영역 \( R \)이 확대된다.

3. 80년대 후반의 경제적

1980년대 후반(특히 1988년 이후) 한국경제는 노동의 수량 제약의 소입에 따른 외화수입의 상승 및 교외지역의 서비스가격의 상승적으로 빠른 상승, 서비스산업의 팽창 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제는 

- 금리의 상승과
- 원화의 평가
- 내수리서의 상승
- 외화수입의 상승
- 서비스산업의 팽창

소입의 상승으로 \( R \)영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장기(소득분배, 기술전보) 및 \( LMEL'(ESNT) \)의 내구성 장기(통화정책, 재정정책, 평가정책)로 볼 수 있다.

86
(表 6)  總需求的所得彈力性

<table>
<thead>
<tr>
<th></th>
<th>73~75</th>
<th>75~78</th>
<th>78~80</th>
<th>80~83</th>
<th>83~85</th>
<th>85~88</th>
<th>85~86</th>
<th>86~87</th>
<th>87~88</th>
</tr>
</thead>
<tbody>
<tr>
<td>1차</td>
<td>1.11</td>
<td>0.91</td>
<td>1.03</td>
<td>0.85</td>
<td>1.19</td>
<td>0.27</td>
<td>-0.16</td>
<td>0.38</td>
<td>0.65</td>
</tr>
<tr>
<td>2차</td>
<td>1.21</td>
<td>1.02</td>
<td>1.47</td>
<td>0.93</td>
<td>1.69</td>
<td>0.9</td>
<td>0.72</td>
<td>1.14</td>
<td>0.88</td>
</tr>
<tr>
<td>3차</td>
<td>1.03</td>
<td>1.06</td>
<td>1.5</td>
<td>1.01</td>
<td>1.83</td>
<td>0.77</td>
<td>0.46</td>
<td>0.97</td>
<td>0.91</td>
</tr>
<tr>
<td>전력, 가스, 수도</td>
<td>1.39</td>
<td>0.95</td>
<td>1.92</td>
<td>1.21</td>
<td>1.21</td>
<td>0.53</td>
<td>0.3</td>
<td>0.61</td>
<td>0.63</td>
</tr>
<tr>
<td>건실</td>
<td>1.04</td>
<td>1.13</td>
<td>1.42</td>
<td>1.01</td>
<td>1.64</td>
<td>0.65</td>
<td>-0.02</td>
<td>1.11</td>
<td>0.98</td>
</tr>
<tr>
<td>도소매</td>
<td>0.98</td>
<td>0.96</td>
<td>1.13</td>
<td>0.82</td>
<td>1.83</td>
<td>0.87</td>
<td>0.73</td>
<td>1.13</td>
<td>0.78</td>
</tr>
<tr>
<td>음식점 및 숙박</td>
<td>0.93</td>
<td>1.04</td>
<td>1.09</td>
<td>0.92</td>
<td>1.28</td>
<td>0.87</td>
<td>0.45</td>
<td>1.44</td>
<td>0.87</td>
</tr>
<tr>
<td>운송 및 보관, 통신</td>
<td>1.01</td>
<td>1.02</td>
<td>1.58</td>
<td>1.05</td>
<td>1.27</td>
<td>0.63</td>
<td>0.43</td>
<td>0.69</td>
<td>0.71</td>
</tr>
<tr>
<td>금융 및 보험, 부동산</td>
<td>1.1</td>
<td>1.13</td>
<td>1.67</td>
<td>0.95</td>
<td>2.40</td>
<td>0.93</td>
<td>0.62</td>
<td>1.15</td>
<td>1.14</td>
</tr>
<tr>
<td>부동산 제공행 및 국방</td>
<td>1</td>
<td>1.04</td>
<td>2.18</td>
<td>1.01</td>
<td>0.74</td>
<td>0.84</td>
<td>0.72</td>
<td>0.66</td>
<td>1.05</td>
</tr>
<tr>
<td>기타 서비스</td>
<td>1.01</td>
<td>1.1</td>
<td>1.22</td>
<td>1.19</td>
<td>1.03</td>
<td>0.72</td>
<td>0.44</td>
<td>0.86</td>
<td>0.88</td>
</tr>
</tbody>
</table>

註：소득 탄력성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
E = \frac{4X/X}{4Y/Y}
\]

\(X\)는 각년도의 수요량이며, \(Y\)는 요소비용으로 과약한 국민소득이다.

資料：韓國銀行，『產業連系表』，各年度。

[圖 7]

가. 所得水準上昇과 所得弾力性

서비스산업 확대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에 하나가 所得弾力性이다. 즉 所得이 증가할수록 非交易財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제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이 점차로 커지며, 서비스의 所得弾力性은 製造業에서보다 약간 큰 것으로 밝혀졌다(表 6 참조).

이러한 所得弾力性의 차이를 인하여 급속한 소득수준의 상승은 [圖 7]에서처럼 비교역제시장의 實效均衡曲線(NTEL)을 右上向으로 이동시키고 따라서 \(R\)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그로 인하여 이전에 균형상태는 전반적인 초과수요영역에
(표 7) 생산성 증가률

<table>
<thead>
<tr>
<th></th>
<th>서비스</th>
<th>製造業</th>
<th>非農業 (全產業)</th>
</tr>
</thead>
<tbody>
<tr>
<td>1984</td>
<td>6.96</td>
<td>14.5</td>
<td>9.4</td>
</tr>
<tr>
<td>1985</td>
<td>1.52</td>
<td>2.3</td>
<td>1.5</td>
</tr>
<tr>
<td>1986</td>
<td>8.67</td>
<td>8.3</td>
<td>8.7</td>
</tr>
<tr>
<td>1987</td>
<td>8.95</td>
<td>2.9</td>
<td>7.2</td>
</tr>
<tr>
<td>1988</td>
<td>6.79</td>
<td>7.4</td>
<td>7.4</td>
</tr>
<tr>
<td>1989</td>
<td>2.63</td>
<td>0.1</td>
<td>1.6</td>
</tr>
<tr>
<td>1990</td>
<td>5.64</td>
<td>8.8</td>
<td>6.4</td>
</tr>
<tr>
<td>1991</td>
<td>3.84</td>
<td>6.6</td>
<td>4.6</td>
</tr>
</tbody>
</table>

주: 1) 生産성은 부가가치생산성으로 1년당 부가가치증을 의미함.

資料：韓國銀行『國民所得計算』으로부터 계산.

해당되어 貨金과 非交易財的 價格은 上昇壓力を 받게 된다.

나. 技術進歩의 效果

技術進歩가 일어나게 되면 労動절감과 그로 인한 生産量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技術進歩가 일어나면 분야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 交易財部門에서의 技術進歩(h의 증가)로 이 인이 일어나게 되면 交易財產業에서 労動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이때 반드시 非交易財產業에도 労動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労動市場의 초과수요는 労動市場 균형곡선(LMEL)을 上方으로 이동시키며, 높아진 소득은 모 든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非交易財市場 균형곡선(NTEL)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圖 7]에서와 같이 이전의 균형점(A)은 이제 R의 영 역에 해당되므로 非交易財価格과 貨金의 上昇壓力을 받게 된다.

非交易財部門에서 技術進歩(h의 증가)가 일어 났다면 非交易財의 生産이 늘어나므로 非交易財產業의 필요노동需給량이 줄어들이 労動과 非交易財의 超過供給領域이 확대된다. 즉 초기결정점(A)은 縮小된 過剩需給市場인 K曲線에 처한다. 韓國은 1980년대 중반 이후 非交易인 서비스 部門의 生産性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으나, 交易財部門의 生産性은 그보다 더욱 빨리 향상되었다. 이러한 상대적 차이는 労動市場에서 労動에 대한 超過需給 및 소 득증대에 동반한 需給에 대한 超過需給을 야기하여 경제를 가격상승압력이 있는 R의 상태에 처하도록 했다.

다. 擴張的 通貨政策의 效果

초기결정점 상에서 통화증가는 비동조소득(I)을 증가시키고 이는 労動市場과 資本市場에서 초과 수요로 작용한다. 따라서 非交易財市場의 균형곡
(表 8) 経済政策変数 増加率 稼移

(단위:%)

<table>
<thead>
<tr>
<th></th>
<th>GDP증가율 1)</th>
<th>통화증가율</th>
<th>정부지출증가율</th>
</tr>
</thead>
<tbody>
<tr>
<td>1984</td>
<td>13.8</td>
<td>7.7</td>
<td>8.8</td>
</tr>
<tr>
<td>1985</td>
<td>11.3</td>
<td>15.6</td>
<td>12.1</td>
</tr>
<tr>
<td>1986</td>
<td>15.6</td>
<td>18.4</td>
<td>11.1</td>
</tr>
<tr>
<td>1987</td>
<td>16.1</td>
<td>19.1</td>
<td>14.5</td>
</tr>
<tr>
<td>1988</td>
<td>18.0</td>
<td>21.5</td>
<td>14.1</td>
</tr>
<tr>
<td>1989</td>
<td>11.8</td>
<td>19.8</td>
<td>20.1</td>
</tr>
<tr>
<td>1990</td>
<td>20.8</td>
<td>17.2</td>
<td>26.7</td>
</tr>
<tr>
<td>1991</td>
<td>20.1</td>
<td>21.9</td>
<td>14.0</td>
</tr>
</tbody>
</table>

주: 1) GDP증가율은 정상임.


선 (NTEL)을 右向으로 이동시키고 勞動市場의 균형곡선 (LMEL)도 右向으로 이동시키개 초기 균형점 (A)은 [圖 7]의 R상태에 처하게 되어 장기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價格上昇圧力을 경험하게 된다.


라. 財政政策의 效果

정부의 交易財 구입 (G)은 貿易收支에 영향을 주지만 非交易財 구입 (G)의 변화는 非交易財 價格決定에 영향을 준다. 특히 이는 집합적으로 비교역제 수요에 영향을 주어 통화정책보다 효과가 더 크다. 단, 균형예산의 확대를 통한 財政支出의 증가시에는 非交易財의 超過需要狀況下에서 勞動市場均衡 [LMEL (EDNT)]에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정부지출증가율을 보면 1985년 이후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GDP증가율을 훌씬 능가하고 있다. 건설을 포함한 非交易財에 대한 政府支出이 증대되어 非交易財的 價格上昇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마. 平價切上的 效果

平價切上은 交易財部門의 이윤을 축소시키고交易財部門의 勞動需要를 감소시켜, 非交易財市場의 노동수요재책을 완화시킨다. 즉, 勞動市場의 超過需要領域이 줄어든다. 교역계와 비교역계 사이에 粗代替性을 가정하면 교역계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非交易財市場의 초과공급영역이 확대된다. 따라서 [圖 8]에서 보듯이 이전
의 균형점 \((A)\)은 \(K\)의 영역에 치한다. 이상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미정의 및 재창조에 보완성을 가정한다면, 평균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재정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소비도 증가하게 되어 재정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text{화 8}](b)\)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전의 균형점 \((A)\)은 \(K\)가 아니라 \(C\)의 상태에 치하게 된다.

즉 평균적 재정의 및 재창조가 대체성을 갖는다면 계속적인 재정가능한 재정적 확장 등의 효과를 서로 상쇄하여 재정의 효과를 억제할 것이다. 그러나 미정의 및 재창조가 보완재정 경우 평균적 재정가능한 재정적 확장과 마찬가지로 재정이 재정의 수요를 억제할 것이다.

1980년대를 통해 재정이 재정적 재정품과 재정
(표 9) 產業別 中間需要率

<table>
<thead>
<tr>
<th></th>
<th>1980</th>
<th>1985</th>
<th>1988</th>
</tr>
</thead>
<tbody>
<tr>
<td>1. 농림어업</td>
<td>72.6</td>
<td>67.4</td>
<td>69.6</td>
</tr>
<tr>
<td>2. 광업</td>
<td>99.7</td>
<td>100.2</td>
<td>100.8</td>
</tr>
<tr>
<td>3. 제조업</td>
<td>55.0</td>
<td>56.1</td>
<td>54.1</td>
</tr>
<tr>
<td>4. 서비스업</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력・가스・수도</td>
<td>81.4</td>
<td>79.9</td>
<td>81.0</td>
</tr>
<tr>
<td>건설</td>
<td>9.8</td>
<td>9.9</td>
<td>11.3</td>
</tr>
<tr>
<td>도소매</td>
<td>42.7</td>
<td>41.1</td>
<td>43.6</td>
</tr>
<tr>
<td>음식・숙박</td>
<td>36.6</td>
<td>36.8</td>
<td>29.6</td>
</tr>
<tr>
<td>운수・보관・통신</td>
<td>36.8</td>
<td>39.9</td>
<td>44.5</td>
</tr>
<tr>
<td>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td>
<td>61.8</td>
<td>61.3</td>
<td>62.4</td>
</tr>
<tr>
<td>공공행정 및 국방</td>
<td>1.3</td>
<td>0.5</td>
<td>0.6</td>
</tr>
<tr>
<td>기타서비스</td>
<td>9.3</td>
<td>8.4</td>
<td>9.5</td>
</tr>
<tr>
<td>5. 기타</td>
<td>90.1</td>
<td>95.4</td>
<td>93.6</td>
</tr>
<tr>
<td><strong>全産業平均</strong></td>
<td><strong>51.4</strong></td>
<td><strong>50.9</strong></td>
<td><strong>49.9</strong></td>
</tr>
</tbody>
</table>

**註**：中間需要率 = (中間需要額 / 總需要額) × 100.

**資料**：韓國銀行, 『產業連鎖表』, 各年度.

Ⅳ. 서비스産業의 發展方案

1980년대 중반 이후, 韓國經濟는 新로운 經濟 development environment을 경험하게 되었다. 勞動의 超過需要 속에서, 賃金上昇은 服務部門뿐만 아님으로 製造業部門의 原價上昇이 벌어졌다. 그러나 交易可能한 製造業部門은 輸入競爭과 製造業의 供給彈力性 多분에 價格上昇 허나에 직면한 반면, 非交易財 성적이 강하고 供給이 非彈力의 서비스部門은 價格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었으므로,資本利益率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資本 및 勞動의 履行比重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不均衡の 결과에 韓国經濟에서는 服務業部門이 비대해지고 同時に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서비스산업 비중증
대를 창조란 경쟁력 강화와 주요인으로 인식하고 창조력 강화대책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인력을 얻게하고 창조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의 증대는 경제발전단계기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와 같은 창조력으로의 단순한 양적 인력의 정도는 완전용용에 접근하고 있는 1988년 이후의 산업정책 방향으로 부적절하며, 오히려 산업구조의 혁신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창조력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창조력 강화는, 서비스업으로의 인력투입을 얻게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보다는 자동화와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그로 인한 노동력 투입을 잠재하여 제조업의 투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장기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무보건적 창조력의 특이적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여건과 경제발전수준에 맞는 서비스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부문에 대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서비스업에 관한 일반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수간협상으로 서비스업의 자유화 및 시장개방을 활발히 진행시켜 갈 것이다. 한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미 세계 20대 서비스업이슈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이끼국에 비하면 시장의 협소, 심한 규제, 낮은 기술수준 및 생산성, 연구개발의 미흡 등으로 아직 구조가 취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서비스업 자유화가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국내 서비스업의 조정 및 적응문제에 미리 대처함으로써 수출기회를 확대하고, 경제효율증대 및 기술이전의 해택, 상무래의 압력의 극복 등을 자유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1. 균형회복 정책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을 경제는 계속되는 통화팽창과 재정赤축의 트로양으로 인하여 균형이 이탈하여, 외환차입금이 계속 걸리고 있다. 이러한 외환차입금은 상환압력을 완화하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및 외환차입금에 대한 기말금을 압박시키며, 금융재정을 적절히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림 7]의 균형시장과 외환차입금의 균형주기(LME, LMH)가 주향으로 이동하여 균형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식화 및 공공부문의 기술전보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서비스부문의 정비화 및 기계화를 통한 기술적 촉진하고, 지속적인 인력배양을 통해 보다 잘 된 서비스업의 육성을 유도해야 한다.

2. 창조력 경쟁력 향상에 대한

서비스업 정책

서비스업의 산업형성과 효율화는 창조력에 대한 관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창조력 경쟁력 향상은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효율성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만 단순히 창조력에 빠져 많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와 같이 창조력의 유용 작은 증대시점으로서 창조력이 생산성
올 논리는 경제운영 및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제조업의 봉사역전역에, 고효율성 산업의 육성들의 변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제조업의 자주적대로 보충충하며, 재화생산,의 정보화·기술화를 도입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사회성향이 높은이다. 특히, 전문 서비스 및 경영혁신, 서비스발전을 촉진시키는 필요가 있으며, 정보산업의 개발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현재의 재화생산에서 정보·자산산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회계, 융합 등 기업관련 전문서비스업, 또 한 미래산업사회의 필수요건인 정보모집·가공·생산·유통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컴퓨터·정보 통신 관련서비스는 경제과학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또한 금융 등 국내적 요인으로 자라다면 여기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을 통한 자율화와 협력으로 자발적으로 선통한 자중자개방, 경쟁, 경쟁을 추진하여 원치만 서비스산업에 있어 자유화 속도는 매우 느린 상태이며, 설립제한, 업무제한, 가격제한, 경영인 자격제한 및 외국인 투자제한 등 각종 규제제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주요기관은 현행의 규제정책을 풀려 제도적이고 최근의 자유화 성과를 평가하며, 나아가 앞으로도 자유화에 관한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경쟁이 가능하다. 행정공간의 내규와, 융합식으로서 규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단, 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위생 및 독점방지 등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통경영학적 관점의 도입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회가 매우 큰 외국인 투자는 그 효과·비용에 대해 신중한 평가를 거쳐 이익이 큰 부분부터 조기개방하여 자율화를 앞당겨야 한다.

4. 서비스업의 품질과 품질 문제

서비스산품은 무형이고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은 업종,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회계사, 공정기사 등에서 품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와 틀림없이, 베타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몇몇 업종에서는 자격을 갖춘 인력의 부족현상 때문에 서비스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허위를 빌려주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자격인증을 확충하여 자격취득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한편으로는 각종 자격제한제도를 제재하여 서비스산업을 한층 제고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하여 서비스업의 경영기술과 전문인력의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정규 학교교육과 관련학과의 정원증대 이외에도 정부는 직접훈련센터를 이용하거나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채용과 실시간으로써 서비스업의 인력양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기업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거나 자유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기업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자본, 인적 구조, 정보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건들은 업종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예 : 개방과 함께 등록기준의 제조정, 규제완화에 따른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정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V. 结论

韓国経済におけるGNPの収入倍率は、1988年以降GDP、高所得、企業部門において도 서비스部門으로서的変化を含む。いう。この老朽化、労働力の不足、低賃金、不正労働、労働時間が長く、労働コストが高騰している。これに対し、労働市場の構造改革を求める声が高まっている。
비스 또는생산者(中間)서비스의 건설한 발전은

産業構造의 高度화와 經濟發展에 매우 중요하다.

다구나 UR서비스협회의 진행에 따라 韓國서비스

市場의 지속적인 개방은 불가피하고 韓國도 國
際서비스分業의 일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비하여 서비스部門의
競爭導入을 통한 國際競争力 배양에 적극 노력하
여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權五奎, 『서비스市場의 開放과 우리의 對應政策
方向』, 大韓商工會議所, 1989.

俞鎮守,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產性的 國際比較』,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李相學, 『우리나라 서비스交易的 構造와 推移』,

統計廳, 『主要經濟指標』, 各年度.

한국은행, 『우리 經濟의 서비스化 現況』, 『조사
통계月報』, 1990, 4월호, pp. 21~37.

——, 『國民所得計算』, 1990.

——, 『産業連関表』, 各年度.

中和經濟研究所, 『서비스型 經濟發展研究』, 1991.

Bai, Moo-Ki,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XX, No.2, June 1982, pp. 117~140.

Bhagwati, Jagdish, “Splintering and Disembodi-
ment of Services and Developing Nations,”
The World Economy, Vol. 7, 1984, pp. 133~
144.

Gemmell, Norman, Structural Change and Eco-


Fei, John and Gustav Ranis, Development of the
Labor Surplus Economy, Richard Irwin Inc.,
Homewood, 1964.

Giarini, Ori(éd.), The Emerging Service Econ-

Inman, R., Managing the Service Economy; Pro-
spects and Problems, Cambridge University

Kakabadse, Mario, International Trade in Serv-
ices: Prospects for Liberalization in the
1990s, The Atlantic Institute for Interna-

KIEP, Growth of Structure of Service Industry of
Korea, 1986.

Lewis,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Neary, J. Peter, “Nontraded Goods and the Bal-
ance of Trade in a Neo-Keynesian Tem-
porary Equilibrium”, Quarterly Journal of Eco-
nomics, Nov. 1980, pp. 403~429.

Nusbaum, Jacques, The Service Economy:
Lever to Growth, Kluwer Academic Pub-